

이재명 과반 승리...이낙연 추격 불씨

누적득표율 이재명 51.41·이낙연 31.08

후보간 합종연횡·중도사퇴 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겨 승리해 대세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강원도 원주 순회경선에서 발표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28만5,856표로 52.09%를 득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15만6,201표로 31.45%를 득표해 선두추격에 실패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 5만7,979표(12.67%), 정세균 후보

2만14표(4.03%), 박용진 후보 5,742표(1.12%), 김두관 후보 2,974표(0.60%) 순이었다.

또한 이날 강원지역 대의원과 관리당원 1만6,000명의 투표 결과 역시 이재명 후보의 과반득표로 승리했다. 이재명 후보 5,048표(55.36%), 이낙연 후보 2,362표(27%), 추미애 후보 785표(8.61%), 정세균 후보 583표(6.39%), 박용진 후보 173표(1.95%), 김두관 후보 67표(0.74%)를 각각 득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총투표수 1만 1,735표 중 5,999표를 얻으며 51.12%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2위인 이낙연 후보는 3,284표로 27.98%에 그쳤다. 3위는 추미애 후보로 1,741표를 얻어 14.84%를 득표했다. 이어 정세균 후보가 423표(3.60%)로 4위, 김두관 후보 151표(1.29%)로 5위, 박용진 후보가 137표(1.1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 11일(대구·경북) 이날 치러진 강원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합산한 누적득표수에서 역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확고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득표에서 28만5,856표를 획득해 51.41%로 2위와의 격차를 벌였다. 이낙연 후보는 누적득표율 31.08%(17만2,790표)로 2위를 기록했다. 향후 호남지역 순회경선과 2차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추미애 후보 11.35%(6만3,122표), 정세균 후보 4.27%(2만3,731표) 박용진 후보 1.25%(6,963표), 김두관 후보 0.63%(3,526표) 순이었다.

이낙연 후보는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질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충청 패배 직후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뒤 호남에 계속 머물며 최대한 공을 들여 왔다.

1차 슈퍼워크 결과에 따라 각 후보들의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연합뉴스

합종연횡이나 중도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지역 전국대의원·관리당원 경선을 진행한다. '2차 슈퍼워크' 결과는

3일 공개한다.

이어 경기 경선은 내달 9일, 서울 경선은 내달 10일 열리며 서울 경선에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공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5일 후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강병문 기자

유튜브 특혜 연루 의혹 강정희 도의원 ‘몰아주기’ 여수업체와 곳곳 연관 정황

강 의원 주관 토론회 비용청구 없는 ‘공짜 생중계’
“업체 대표가 도청 간부에게 강 의원 소개” 증언도
업체는 허위실적 내고 계약...입찰담합 등도 불거져

〈속보〉전남도의 유튜브 콘텐츠 외주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본보 9월 7일자 1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강정희 전남도의회이 해당 업체와 깊이 연관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강 의원은 해당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오락가락 말을 뒤집어 왔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역시 허위실적을 통해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규명해야 할 새로운 의혹들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여성인권시설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인권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여했고,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생방송으로 동시 진행됐다. 생방송은 전남도 유튜브 외주제작 과정에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지역 업체 ‘팀제로백’이 맡아 이뤄졌다.

강 의원과 팀제로백과의 연관성은 토론회가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관련 비용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유튜브 제작비용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등에 사활을 건 업체가 강 의원이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는 ‘공짜 중계’를 한 셈이다.



조기 성묘 나선 시민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당일 교통혼잡을 피해 12일 오전 광주 시민공원 묘지를 찾은 시민들이 미리 성묘를 하며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고 있다. /김생훈 기자

이에 대해 팀제로백측은 지난 11일 “회계담당 직원이 내역을 갖고 있어 주말에 는 확인이 힘들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팀제로백과의 연관성은 유튜브 제작을 전담하고 있는 전남도 대변인

실 소속 사무관의 갑질과 향응 의혹 등을 폭로했던 A씨의 증언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팀제로백 대표가 문제의 전남도 사무관에게 강 의원

을 소개해 줬다”며 “해당 사무관과 팀제로백 대표, 그리고 저를 포함해 4명이 매신저 대화방을 운영했고 그 방에서 강정희 의원 이야기를 자주했다”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 기자

한국에너지공대 기숙사 부영CC 리조트 활용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이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리조트를 임대해 학부생 임시 기숙사로 활용한다.

대학 측은 리조트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쾌적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며, 숙소 옆에 위치한 클럽하우스에 쾌적한 식당과 최신식 설비를 갖춘 세미나실, 다양한 학생활동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입학하는 모든 학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리조트는 부영그룹이 지난해 대학부지로 부영CC 40만㎡를 학교법인에 기증하고 남은 잔여지에 소재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리모델링한 부영CC리조트 공간 확보와 별개로 기숙형대학(RC)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RC는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교육시스템으로 학생들에게 생활 속에서 팀 프로그램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카페

객실

웨딩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